

부산시립무용단 특별공연

2010 우리춤 산책

무용감독 | 홍기태(예술감독 겸 수석안무자)

| 일 시 | 2010. 1.20(수) ~ 22(금) 19:3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입장권 | 균일 ₩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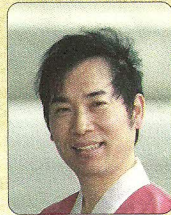


첫째마당 2010. 1. 20(수)



1. 지전춤 / 김동숙(부수석)

망자를 위한 무속의례인 씻김굿(동해안 오구굿) 중에서 창호지를 길게 오려 총채처럼 만든 것을 양 손 혹은 한 손에 들고 망자의 넋을 불러 깨끗이 씻어주어 부정을 가시고 원한을 풀어주어 극락으로 보내는 춤이다.



2. 이척류 산조춤 / 장래훈(수석)

휘영청 달 밝은 밤에 대금 선율에 취한 한 선비가 님을 그리워한다. 진양조, 중모리, 옛모리의 산조 가락에 맞춰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흥에 취한 채 춤을 춘다.



3. 장고춤 / 이상민 박은혜 김도은 김시현

풍류 장고춤은 춤의 섬세함과 장단신명으로 악기와 춤이 하나 되어 어우러지는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춤사위가 특징이며 춤추는 연희자의 감성과 심리에 따라 춤 맛이 달라지고, 개성적인 춤사위가 빛이 나는 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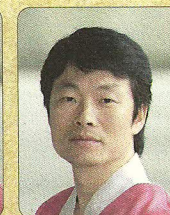
4. 입춤 / 서정숙(총무)

홍풀이 춤의 일종인 입춤은 흥과 멋이 춤의 주체이며, 특별한 의상이나 소도구 없이도 장소나 분위기에 구애받지 않는 즉흥성이 특징인 춤이다.



5. 도살풀이 / 이화성

도살풀이는 '도당 살풀이'를 줄인 것으로, 하얀 치마에 열 한자 명주 폭을 싸들고 구천길 맨도는 수많은 넋을 달래며 살과 액과 회를 녹여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춤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목젓놀이와 내면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곡선의 추스름 등이 특징적이다.



6. 고성오광대 문동복춤 / 강모세 허태성

불구의 몸으로 소고를 마치 자기신체의 일부처럼 기묘하게 어르면서 추는 엇장단의 여유와 걸먹는 춤사위는 고성오광대만이 가지는 멋이며 특징으로 내면의 기쁨과 희망을 춤으로 표현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신명을 자아낸다.

특별출연 / 태평소-윤현호 악사-김동수 안대천 최영호 허창렬



1. 한영숙류 승무 / 윤은하

불교 의식 춤의 개념과 복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속에서 전해진 춤으로 오랜 형성과정을 거쳐 조선 말기에 지금의 형식으로 구체화되었고 독자적인 춤으로 정립되었다.

특별출연 / 교수-장래훈(수석)



2. 동래학춤 / 황대현

학의 고고하고 우아하며 여유롭게 노니는 형상을 모방한 춤사위로 자연미와 예술미의 조화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춤의 예술성이 모방과 사실성보다는 창조성과 즉흥성, 상징성의 차원에서 단순한 민속춤으로서의 범주를 넘어 예술적 차원에 도달한 춤이다.



3. 대감놀이 / 김진영(부수석)

경기 도당굿과 전라도 당굿의 무당춤을 기본 춤사위로 매혹적인 굿판의 신명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신명을 넘나드는 무녀의 춤사위가 보는 이의 신명을 함께 이끌어내는 드라마틱한 춤이다.



4. 진도북춤 / 권봉정(수석) 이수연

나는 듯 머무는 듯 몰아치고 되돌아가는 멋이 천 길 낭떠러지에 내리쬐히는 물줄기 같은 멋이 있으며, 화려한 북장단 멋들어진 발놀림과 팔사위는 풍물 춤과 같은 즉흥과 신명을 띄는 것이 특징적인 춤이다.

특별출연 / 이현숙 허태성 황대현 성현우 장영진



5. 산조춤 / 오숙례

일반적인 산조가락의 음률과 달리 창의성을 가미한 서정성이 특성으로 음률의 흐름에 따라 자아내는 춤의 형태는 섬세하고 독창적이다. 흥과 멋과 세련미가 여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맛깔스러운 춤이다.



6. 이매방류 살풀이춤 / 김주연

한국 전통춤의 백미로 불리며 춤사위와 발 디딤이 섬세하고도 격조 있게 정중동의 미적 세계를 그려내는 살풀이춤은 단순한 슬픔의 춤이 아니라 슬픔을 바탕으로 하되 비탈을 넘어 정과 환희의 세계로 승화시키는 춤이다.



7. 김병섭류 설장고 / 김공주 김윤호

김병섭류 설장고는 호남의 독특한 가락, 섬세한 발놀림, 그리고 여성적인 느낌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무용적인 요소가 듬뿍 담긴 점이 특징적인 설장고춤이다.

셋째마당 2010. 1. 22(금)



1. 이매방류 승무 / 서현미

춤사위에 따라 업을 벗는 과정을 도드리로, 속세와의 결별을 궁거리로 해탈과 희열을 북가락으로 표현하는 승무는, 세차고 풍요롭고 멋들어진 북가락의 울림이 감상자로 하여금 예술의 극치를 맛보게 하는 춤이다.

특별출연 / 교수-장래훈(수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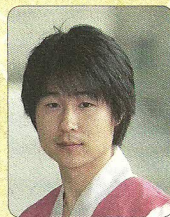
2. 최종실류 소고춤 / 이현숙 강미향 황선희

농악놀이 중 소고(법구) 가락만 발췌, 재구성하여 무대화한 작품으로 춤사위가 아기자기하고 신명이 넘치는 춤이다. 연주가락에 맞추어 소고를 들고 애절하게 한을 달래다가도 흥겹게 몰아내는 춤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무용이다.



3. 산조춤 / 정진희(수석)

우조와 평조, 계면조를 동시에 사용하여 엃박의 묘미를 취하고 있는 음악과 같이, 춤사위 또한 우조의 산뜻함과 우아함, 평조의 안정감과 편안함, 계면조의 섬세함과 절제가 어우러진 점이 특징적이며,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조화시켜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멋에 이 춤의 묘미가 있다.



4. 진도복춤 / 류권홍 조은미(비상임)

복을 왼쪽 어깨에 걸쳐 허리에 묶은 다음 두 개의 복채로 흥겹게 복을 치며 추는 춤으로 복장단이 음악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어떤 가락에 춤을 취도 항상 강약의 암수로 복을 치며 춤추는 것이 특징이다.

특별출연 / 풍물패 쟁이(박준식 이호진 정호선) 허태성 장영진



5. 한량무 / 이성원

예로부터 멋과 풍류를 세월에 안은 많은 한량들의 투박한 춤사위와 덧배기사위들이 조화로운 형태로 변모되어 예술적 가치와 전통미를 인정받은 춤으로 양반 사대부의 여유로움과 자재로움이 담긴 남성적인 역동성이 내면에 깃든 춤이다.



6. 설장고춤 / 박창희

설장고는 음악적인 요소와 몸동작이 어우러지는 무용적 요소가 가장 뛰어난 민속놀이로서, 역동적이면서도 절도있는 남성적인 발놀음과 섬세하면서도 부드러운 여성적인 손짓춤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별출연 / 해미르예술단(팽과라-이선구 장-송은희 장고-이동현 북-강태욱)